

2016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 국어학반

1. 답사 개요

- 일시: 2016년 5월 12일(목) - 5월 14일(토)
- 장소: 강원도 평창 일대
- 주요 활동:
 - 4개 조로 나뉘어 평창 지역의 방언을 조사함.
 - 강릉시, 평창군의 명승지를 답사함.
- 참가 인원:
 - 교수(5명): 이현희, 김성규, 박진호, 김현, 황선엽
 - 조교(1명): 이의중
 - 대학원생(17명): 김푸른솔, 박성미, 최소연, 김동은, 윤예진, 임옥정, 김지은, 김고은, 조근학, 발테르, 이염려, 고재필, 강규영, 배윤정, 이순욱, 김다미, 엔카이모에
 - 학부생(10명): 유주용, 김진, 김동욱, 김우건, 백인영, 장문정, 김희숙, 박초흔, 이현지, 김은비

2. 답사 일정 및 활동 내용

■ 일정

(1) 5월 12일

- 오대산 월정사, 오대산 상원사 관광
- 강릉 안인염전해변 관광

(2) 5월 13일

- 09:30 ~ 17:30 - 조사지로 이동, 방언 조사
- 18:00 ~ 20:30 - 저녁 식사 및 방언 조사 보고

- 21:00 - 뒤풀이

(3) 5월 14일

- 대관령양떼목장 관광 후 귀경

■ 방언 조사

- 장소: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2리, 대화10리
- 제보자 정보
 - 김영성(6?세) 평창 태생, 토박이 거주자
 - 김복열(76세) 평창 태생, 토박이 거주자
 - 김정기(7?세) 평창 태생, 토박이 거주자
 - 전영록(64세) 평창 태생, 토박이 거주자
 - 전영진(7?세) 평창 태생, 토박이 거주자
- 조별 조사 내용
 - 1조: 음운체계, 종결어미 및 어휘(농경, 음식, 가옥) 조사
 - 2조: 음운체계, 종결어미 및 어휘(의복, 인체) 조사
 - 3조: 음운체계, 종결어미 및 어휘(인체, 동물) 조사
 - 4조: 음운체계, 종결어미 및 어휘(동물, 식물, 자연) 조사

■ 고전·현대문학반

1. 답사개요

- 일정: 2016. 5. 12(목) - 2016. 5. 14(토)
- 장소: 충청북도 일대
- 지도교수
(고전문학) 이종묵, 조현설, 정병설, 조해숙, 나수호, 서철원
(현대문학) 신범순, 박성창, 김유중, 방민호, 김종욱
- 인솔조교: 최어진(고전문학)
노태훈(현대문학 1호차), 홍승진(현대문학 2호차)
- 참가학생: 학부생 53명, 대학원생 44명

2. 답사 일정

똑같은 장소라도 그 장소에 대한 느낌이 사람마다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군기는 올해 국문과의 학술답사 코스가 충주, 보은, 옥천 등의 충청북도 일대라는 사실이 좋았겠지만, 나로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청주 출신인 나는 매번 집에 갈 때마다 가야 하는 충북보다도 평소 갈 기회가 없었던 다른 지방에 더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정표를 보아도 고구려비, 탄금대, 범주사 등 이미 가본 장소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하지만 마냥 아쉬워만 한다고 일정이 마음대로 바뀔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왕 가는 김에 가봤던 곳에서는 옛 기억을 되새기고, 처음 가는 곳에서는 그 새로움을 즐기기로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첫날에 간 클라우드 맥주공장은 나에게 있어 새로움이 가득한 곳이었다. 우선 처음 견학하는 맥주공장에서 맥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그 제조과정, 공장 시설 등에 대해 배워본다는 경험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히 맥주가 발효되도록 저장해두는 탱크의 크기는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맥주를 매일 한 캔씩 평생을 마셔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만큼 거대했다. 또한 견학이 끝난 뒤의 시음회를 기대하는 학생들의 눈에서는 이전까지 느껴지지 않았던 생기가 넘쳐흘렀다. 비록 나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브랜드가 다른 맥주보다 얼마나 맛있지는 몰랐지만, 다 같이 맥주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는 분위기 자체가 참 좋았다. 이때의 즐거운 분위기가 남은 답사 일정 내내 이어진 것 같다.

그 다음에 간 탄금대는 나와서 인연이 깊은 곳이다. 처음 가족끼리 소풍을 왔던 기억은 아직 어릴 때라서 그때 남긴 사진만큼 선명하지는 못하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역사수업 과제를 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임진왜란 당시 이곳 탄금대의 상황을 재연하는 대화를 영어로 나누면서 그것을 동영상 촬영까지 해야 했다. 그때의 창피했던 기억도 아직 생생히 남아있는데, 이번 답사에서 그보다 더 창피한 기억을 만들게 될 줄은 몰랐다. 밤에 있을 장기자랑을 위해 평생 춤이라고는 배워본 적도 없었던 내가 우리 조의 춤 선생을 자청했던 것이다. 위령탑 옆으로 펼쳐진 잔디밭 위에 조원들을 둘러 세우고 그 앞에 홀로 서서 춤을 가르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두 볼이 화끈거린다. 물론 이를 위해 답사 전부터 꼬박 일주일간 연습하긴 했지만, 여전히 춤은 내게 너무나 먼 영역이다. 그래도 나만큼이나 민망했을 조원들이 열심히 따라주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고,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었다. 아쉽게도 숙소에 늦게 도착한 관계로 장기자랑은 다음날로 미루어졌고, 별일 없이 일찍 잠을 청했다.

둘째 날에는 아침부터 법주사로 가는 산길을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셨다.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행사를 위한 연등이 줄지어 달려있었고, 금동미륵대불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단일 불상다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절의 입구 옆에 서있는 철당간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때는 이것이 단지 철로 된 기둥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당간이란 절의 행사나 법회 등을 알리는 기(旗)를 달아놓던 깃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주에도 이와 비슷한 모양의 용두사지 철당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찍이 이것에 대해 조사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옥천으로 이동하여 정지용 생가와 문학관을 둘러보았

다. 마침 지용제가 열리고 있어서 문학관에서 지용문학공원까지 이어지는 차 없는 거리에서는 ‘7080 향수음악다방’에서 디제잉 하기, 도자기 만들기, ‘고향솥대’ 만들기 등의 여러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날이 더웠지만 생가, 문학관, 축제를 모두 구경하기 위하여 바빠 돌아다녔다. 생가는 원래 모습으로 잘 복원되었고, 문학관 역시 정지용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하게 구성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지용제에서 열리는 체험활동의 내용이 정지용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들었다. 그래도 ‘지용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꾸준히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시인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둘째 날 일정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노근리 평화공원이다. 이곳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우선 답사를 오기 전까지는 몰랐던 노근리 학살사건을 새로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사건이 일반에 알려지는 데 문학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하마터면 실상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잊힐 뻔했던 사건의 경위는 한 사람이 쓴 소설이 출간되면서 다시 기사화되고 취재가 이루어지며 재조명받을 수 있었다. 이를 보면 문학은 역사서조차 망각할 수 있는 대상들을 다시 기억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노근리조차 운이 좋아 기억된 경우로, 6·25전쟁 통에 아무도 모르게 원치 않은 희생을 당해야 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을 호명하고, 이들을 애도하는 행위가 문학이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싶다.

이날 밤에 드디어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가 참여하는 장기자랑이 있었다. 연습시간에 어제 급하게 가르쳤던 안무들을 되짚어보는데 조원들이 생각보다 잘 기억하고, 나중에는 다 같이 주도적으로 무대를 어떻게 꾸며야 할지에 대해 얘기하였다. 다시 한 번 조원들이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졌고, 그들 덕분에 무난히 무대를 마칠 수 있었다. 사실 난 가장 앞에서 혼자 춤추고 노래하느라 정신없어서 뒤의 조원들이 잘 했는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분명 잘 해줬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조뿐만 아니라 모든 조들이 부족한 연습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훌륭하고 정성스럽게 무대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보는 사람 모두가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기 자랑에 대한 여운과 함께 답사 마지막 밤이라는 아쉬움이 겹치며 그 밤의 뒤풀이 열기는 밤이 깊어가도 식을 줄 몰랐다.

셋째 날 아침에 찌뿌둥한 몸을 겨우 일으켜 월류봉으로 출발하였다. 월류봉은 마치 중국에서 자연경치로 유명하다는 관광지외 비건될 정도로 그 경관이 매우 아름다웠다. 졸린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그 모습에 감탄하며, 충북에도 내가 미처 몰랐던 이런 곳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양말과 신발까지 벗고 개울을 건너 건너편 정자에 갔다 오는 길이 정말 시원하였다. 아쉽게 월류봉을 뒤로 하고 영동의 유명 와이너리에 가서 와인에 발을 담그고 족욕을 하며 여러 맛의 와인을 시음까지 하였다. 이게 웬 예상치도 못했던 호사인가 싶을 정도로 특이한 경험이었고, 점심으로 먹은 와인 돈가스까지 맛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진천의 조명희 문학관에 들렀다. 입구에 서있는 번쩍거리는 조명희의 동상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전시실에는 조명희의 생애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들과 함께 친필 편지, 러시아에서 발행된 작가에 관한 저서 및 신문 기사 등이 해설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다. 「낙동강」의 작가라고만 알고 있었던 그가 김우진과 함께 극예술협회를 조직하고, 희곡 「김영일의 사」를 써서 전국 순회공연까지 했었다는 사실은 새롭게 알게 되었다. 학교로 돌아가면 문학관에서 받은 자료집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며 조명희를 더 자세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명희 문학관을 마지막으로 모든 답사 일정을 끝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피로의 여파가 남은 주말 내내 남긴 했지만 말이다.

이 글을 쓰며 돌이켜보니 나는 처음에 무슨 자격과 배짱으로 충북일대의 코스를 싫어했는지 반성을 하게 되었다. 글에 미처 다 담진 못했지만, 아침 날씨에 산책하기 정말 좋게 예쁘게 꾸며져 있던 노근리 평화공원이나, 둘째 날 저녁을 먹은 식당 앞에서 마주쳤던 시골역의 정겨운 모습 등 답사를 하는 내내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정경들을 충북은 담고 있었다(월류봉은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다시 찾아가고 싶을 정도이다.). 그 모든 장면들이 오랫동안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아울러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선불리 호오를 정해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깨달음을 새삼 느꼈다. 또한 이번
에 처음으로 대학원생으로서 답사에 참여해보니 학부생 때는 미처 몰랐던,
답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수고와 노력들이 정말 많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모든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 답사 때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성자: 현대문학 이정훈)